

## 노동시장 동향

### 경제일반

- ◆ 2005년 3/4분기 생산·소비·투자 증가
  - 200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함(계절변동조정 전기대비로는 1.8% 증가).
    - 제조업 부문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3.3% 증가함.
    - 소비는 TV, 컴퓨터, 승용차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의료 및 보건, 통신 등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4.0% 증가, 투자는 설비투자의 증가와 자동차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확대로 4.2% 증가하였음.
  - 2005년 9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7.2%, 5.4% 증가하였고, 도·소매판매는 2.7% 증가하였으나, 투자는 2.0% 감소하였음.
    - 9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31.9%), 영상음향통신(16.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3/4분기로는 6.9% 증가하였음. 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부진으로 2.0% 감소(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

업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됨. 도소매업,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됨(그림 2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3				2004					2005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9월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p 9월
생산	광공업 생산	6.1	3.1	3.0	7.7	11.3	12.7	11.4	10.9	6.7	3.8	4.0	6.9	7.2
	제조업 생산	5.7	2.9	3.0	8.0	11.9	13.2	11.6	11.0	7.0	3.5	3.9	7.0	7.3
	출하	4.4	2.8	2.5	6.7	10.0	10.8	10.1	9.9	5.8	3.5	3.5	6.0	5.4
	수출	7.3	9.9	11.2	17.6	21.9	23.4	20.4	20.1	15.0	10.9	6.8	8.0	9.1
	내수	2.8	-0.7	-2.1	0.9	3.7	3.8	4.1	4.0	0.3	-1.2	1.4	4.6	-2.8
	서비스업 생산	1.9	0.9	0.5	0.6	2.1	0.9	-0.5	-0.7	-0.2	0.7	2.4	5.3	5.4
소비	도소매 판매	1.7	-1.5	-2.3	-2.0	-0.2	-0.6	-1.1	-2.2	-1.4	-1.0	2.6	3.6	2.7
투자	설비투자	2.6	0.2	-6.4	-5.3	-2.0	3.2	3.8	6.0	0.1	4.0	1.4	0.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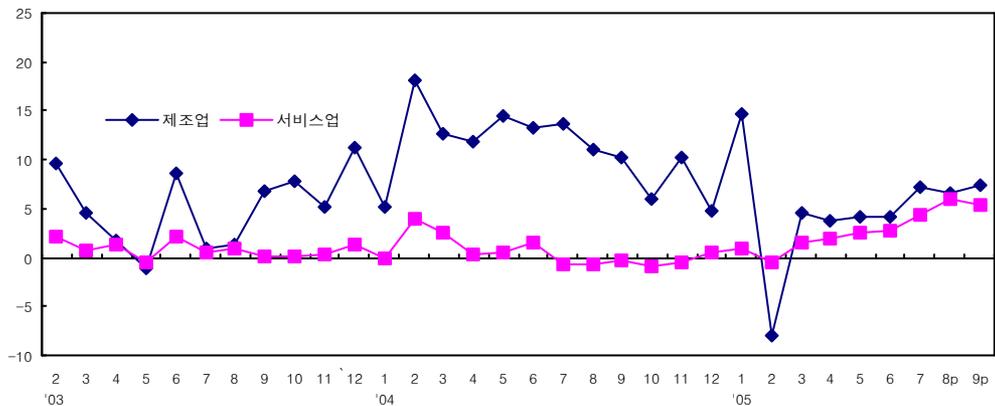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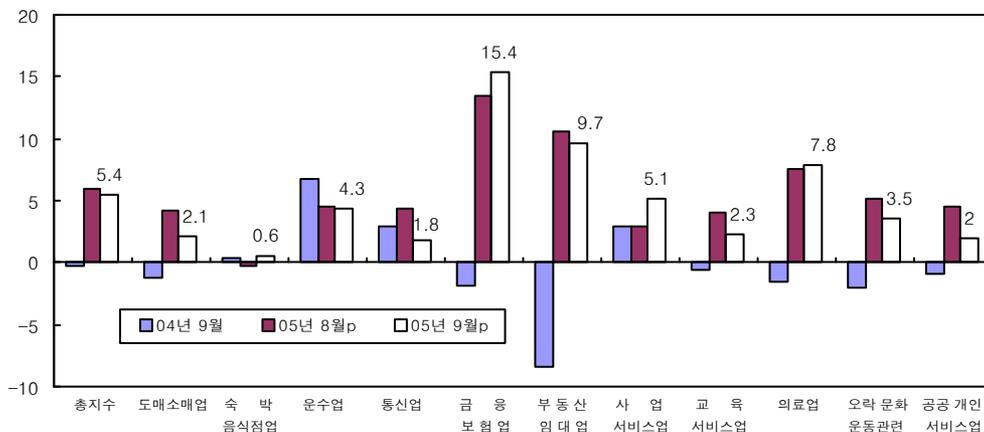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5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2005. 10.

\_\_\_\_\_, 『2005년 9월 및 3/4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10.

- 도·소매판매는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소매가 4.6% 감소하였으나 도매업(5.0%), 소매업(1.6%)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0%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하였음(그림 3 참조).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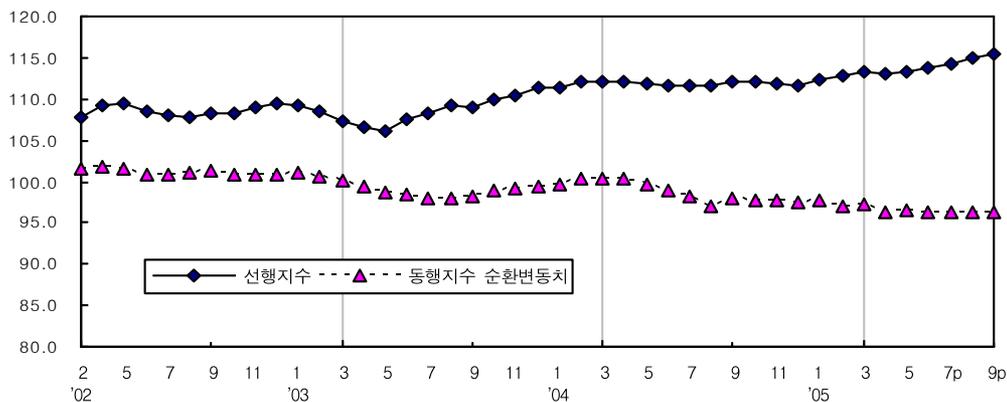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감소 실업률 증가

- 2005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0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5천명(1.5%)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3,950천명으로 96천명(0.7%)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106천명으로 249천명(2.5%) 증가함.
- 2005년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성(74.6%)이 0.8%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51.1%)은 0.4%포인트 상승하여 2005년 4월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임(그림 4 참조).
- 2005년 10월 중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감소
  - 남성의 고용률은 71.7%로 전년동월대비 0.9%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49.4%로 0.2%포인트 증가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며 그 증가세가 지속됨.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경제활동인구	23,035 ( 2.5)	23,576 ( 2.1)	23,482 ( 1.7)	23,711 ( 2.0)	23,575 ( 1.8)	23,221 ( 0.8)	24,004 ( 1.8)	23,893 ( 1.8)	23,918 ( 1.3)	24,056 ( 1.5)
참가율	61.3	62.6	62.2	62.7	62.3	61.1	62.7	62.2	62.2	62.5
취업자	22,104 ( 2.2)	22,744 ( 2.0)	22,647 ( 1.6)	22,901 ( 2.0)	22,733 ( 1.8)	22,247 ( 0.6)	23,126 ( 1.7)	23,026 ( 1.7)	23,048 ( 1.0)	23,186 ( 1.2)
고용률	58.8	60.4	60.0	60.5	60.1	58.5	60.4	59.9	59.9	60.3
실업자	931	831	835	809	842	975	878	867	870	870
실업률	4.0	3.3	3.6	3.4	3.6	4.2	3.7	3.6	3.6	3.6
비경제활동인구	14,542 (-1.2)	14,097 (-0.8)	14,289 ( 0.0)	14,114 (-0.6)	14,273 (-0.3)	14,789 (1.7)	14,271 ( 1.2)	14,533 ( 1.7)	14,530 ( 2.3)	14,412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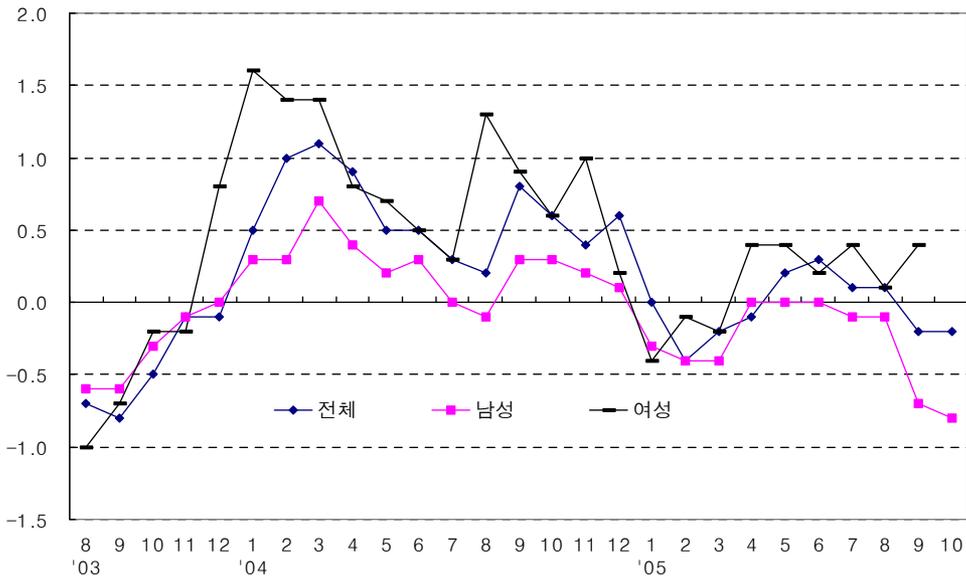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10월 고용동향』, 2005. 11.

[그림 4]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 %포인트,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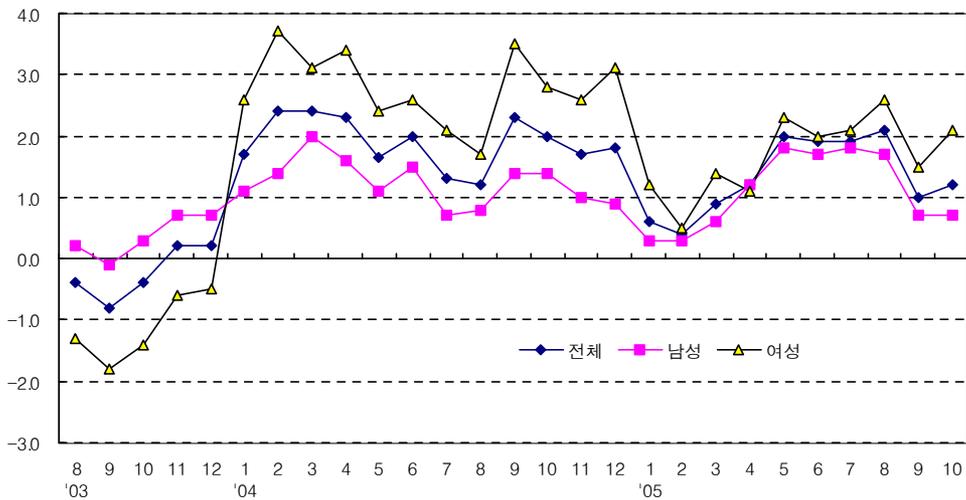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5년 10월 중 취업자는 23,1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4천명(1.2%)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취업자는 13,4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8천명(0.7%), 여성취업자는 9,7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7천명(2.1%)이 증가하여 여성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짐(그림 5 참조).
  - 연령계층별로 보면 15~39세의 취업자는 감소하였고, 40세 이상의 취업자는 증가하였음.
- 2005년 10월 중 실업자는 8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천명(7.5%)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증가함.
  - 남성실업자는 531천명으로 9천명(1.6%), 여성실업자는 339천명으로 52천명(18.3%)이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남성이 전년동월과 동일하여 3.8%를, 여성이 0.5%포인트 증가한 3.4%를 기록함.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며 10월의 여성 실업률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조사원 모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05년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41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8천명(2.1%)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명 증가하였고, 그 증가추세 또한 지속됨.
- ※ 구직단념자 추이 : 92천명(2004. 10) → 103천명(2005. 4) → 114천명(2005. 6) → 148천명(2005. 8) → 123천명(2005. 9) → 125천명(2005. 10)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서비스관련업 취업자 증가,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5년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6천명, 5.5%), 전기·운수·통신·금융업(66천명, 3.0%)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81천명, -1.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8천명, -0.5%), 농림어업(-28천명, -1.4%), 건설업(-119천명, -0.6%) 등에서는 감소함.
  - 5개월간 지속되던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급감함(그림 6 참조).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04년 7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산업	22,104 ( 2.2)	22,744 ( 2.0)	22,647 ( 1.6)	22,901 ( 2.0)	22,733 ( 1.8)	22,247 ( 0.6)	23,126 ( 1.7)	23,026 ( 1.7)	23,048 ( 1.0)	23,186 ( 1.2)
농림어업	1,609 (-5.3)	1,967 (-7.5)	1,933 (-7.5)	1,990 (-5.8)	1,789 (-4.9)	1,525 (-5.2)	2,018 ( 2.5)	1,965 ( 1.7)	1,940 (-0.1)	1,962 (-1.4)
제조업	4,278 ( 2.6)	4,308 ( 1.7)	4,278 ( 2.7)	4,323 ( 2.0)	4,296 ( 1.2)	4,260 (-0.4)	4,257 (-1.2)	4,200 (-1.8)	4,201 (-2.2)	4,241 (-1.9)
건설업	1,762 ( 1.6)	1,864 ( 0.6)	1,790 (-1.7)	1,873 ( 2.0)	1,864 ( 0.6)	1,692 (-4.0)	1,897 ( 1.8)	1,836 ( 2.6)	1,818 (-0.7)	1,862 (-0.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12 (-0.1)	5,866 ( 0.5)	5,819 ( 0.2)	5,811 ( 0.1)	5,853 ( 0.0)	5,835 (-1.3)	5,796 (-1.2)	5,783 (-0.6)	5,774 (-1.0)	5,782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362 ( 7.3)	6,542 ( 8.0)	6,617 ( 5.8)	6,689 ( 6.0)	6,711 ( 6.1)	6,714 ( 5.5)	6,907 ( 5.6)	6,974 ( 5.4)	7,045 ( 5.4)	7,055 ( 5.5)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63 (-0.2)	2,182 ( 0.2)	2,197 ( 2.6)	2,201 ( 2.9)	2,205 ( 2.4)	2,202 ( 1.8)	2,233 ( 2.3)	2,252 ( 2.5)	2,255 ( 2.2)	2,266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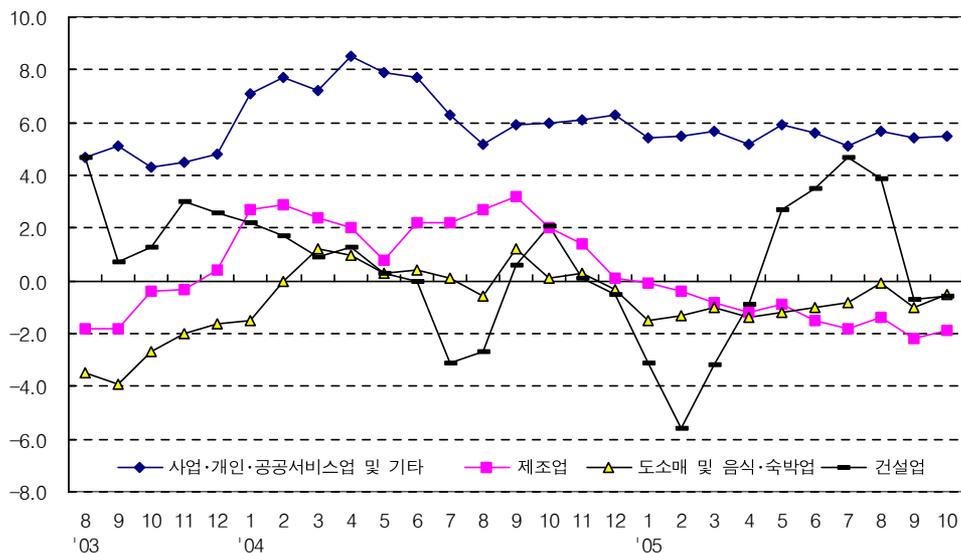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10월 고용동향』, 2005. 11.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임시근로자 증가세 지속,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 2005년 10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84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0.2%)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3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0천명(1.8%)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28천명, 2.9%)와 임시근로자(128천명, 2.6%)는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86천명, -3.7%)는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임시근로자의 상승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 2005년 5월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자영업주의 증가에서 기인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체	22,104 ( 2.2)	22,744 ( 2.0)	22,647 ( 1.6)	22,901 ( 2.0)	22,733 ( 1.8)	22,247 ( 0.6)	23,126 ( 1.7)	23,026 ( 1.7)	23,048 ( 1.0)	23,186 ( 1.2)
비임금근로자	7,490 ( 0.3)	7,762 (-0.4)	7,769 (-2.1)	7,835 (-1.7)	7,631 (-1.5)	7,391 (-1.3)	7,772 ( 0.1)	7,843 ( 1.0)	7,840 ( 0.2)	7,849 ( 0.2)
자영업주	6,001 ( 2.3)	6,136 ( 1.9)	6,177 ( 0.1)	6,209 ( 0.1)	6,126 ( 0.2)	6,022 ( 0.4)	6,210 ( 1.2)	6,272 ( 1.5)	6,269 ( 0.7)	6,260 ( 0.8)
무급가족 종사자	1,489 (-7.0)	1,626 (-8.2)	1,593 (-9.9)	1,626 (-8.2)	1,505 (-8.0)	1,368 (-8.1)	1,562 (-3.9)	1,571 (-1.3)	1,571 (-1.5)	1,589 (-2.2)
임금근로자	14,614 ( 3.2)	14,983 ( 3.3)	14,878 ( 3.6)	15,066 ( 4.1)	15,102 ( 3.6)	14,856 ( 1.7)	15,354 ( 2.5)	15,183 ( 2.1)	15,208 ( 1.5)	15,336 ( 1.8)
상용근로자	7,460 ( 4.0)	7,586 ( 4.6)	7,671 ( 5.5)	7,776 ( 5.8)	7,781 ( 5.4)	7,803 ( 4.9)	7,936 ( 4.6)	7,945 ( 3.6)	8,021 ( 3.6)	8,004 ( 2.9)
임시근로자	5,067 ( 3.3)	5,199 ( 2.3)	5,035 ( 0.9)	4,981 (-0.9)	5,026 (-0.3)	4,968 (-2.0)	5,112 (-1.7)	5,022 (-0.3)	5,013 ( 0.5)	5,109 ( 2.6)
일용근로자	2,087 ( 0.0)	2,197 ( 0.9)	2,172 ( 3.5)	2,310 ( 9.8)	2,295 ( 6.5)	2,085 (-0.1)	2,306 ( 4.9)	2,216 ( 2.0)	2,175 (-3.5)	2,224 (-3.7)
36시간 미만	2,587 ( 0.8)	2,509 (27.9)	2,687 (-10.0)	2,249 ( 6.4)	2,501 ( 5.5)	2,757 ( 6.7)	2,411 (-3.6)	3,138 (16.8)	2,930 (20.0)	2,375 ( 5.6)
36시간 이상	19,125 ( 0.8)	20,004 (-0.8)	19,563 ( 3.6)	20,427 ( 1.5)	20,000 ( 1.4)	18,783 (-1.8)	20,473 ( 2.3)	19,476 (-0.4)	19,865 (-1.3)	20,582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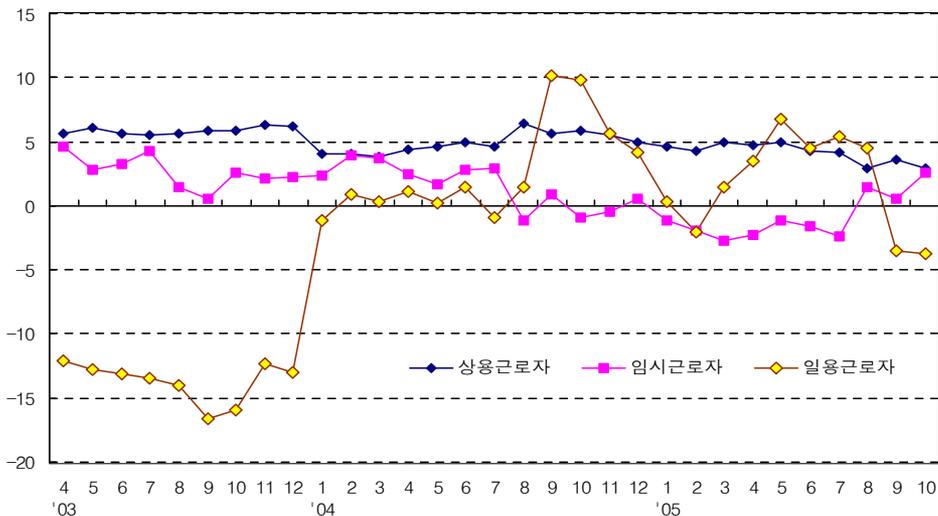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5년 10월 고용동향』, 2005. 11.

- 2005년 10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3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7천명(5.6%)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582천명으로 155천명(0.8%)이 증가함.

- 4개월 연속 지속된 40만개의 일자리 증가가 2005년 9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10월에는 약 28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짐.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임시근로자와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는 체감고용사정이 그리 좋지 않음을 보여줌.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30대 이상 실업률 증가

- 2005년 10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15~29세에서 감소하고 30대 이상에서는 증가
  - 2005년 10월 중 청년층(19~29세)에서의 실업자는 340천명으로(-0.4%) 35천명이 감소함(그림 8 참조).
  - 교육정도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중졸 이하 12천명(2.5%, 0.3%포인트), 대졸 이상 29천명(3.3% 0.2%포인트), 고졸에서 21천명(4.5%, 0.1%포인트) 증가함.
- 2005년 10월 중 전체 실업자 870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는 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증가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840천명으로 59천명(-7.5%) 감소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실업자는 6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0.6%)이 감소하였으나, 이직한지 1년 이상된 전직실업자는 190천명으로 64천명(51.0%)이 대폭 증가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체	931(4.0)	831(3.5)	835(3.6)	809(3.4)	842(3.6)	975(4.2)	878(3.7)	867(3.6)	870(3.6)	870(3.6)
15~29세	472(9.3)	402(8.1)	374(7.5)	375(7.6)	400(8.1)	448(9.0)	377(7.8)	368(7.6)	336(7.2)	340(7.2)
30~39세	193(3.0)	186(2.9)	204(3.2)	201(3.1)	201(3.2)	224(3.6)	200(3.2)	209(3.3)	239(3.8)	228(3.6)
40~49세	159(2.5)	138(2.2)	152(2.4)	137(2.1)	141(2.2)	182(2.9)	165(2.5)	161(2.5)	160(2.5)	178(2.7)
50~59세	79(2.4)	77(2.2)	78(2.3)	73(2.1)	78(2.2)	94(2.7)	94(2.5)	98(2.6)	107(2.8)	93(2.4)
60세 이상	28(1.4)	29(1.2)	27(1.2)	23(1.0)	23(1.0)	23(1.3)	42(1.6)	32(1.3)	29(1.1)	31(1.2)
중졸 이하	155(2.7)	141(2.3)	153(2.6)	137(2.2)	144(2.4)	169(3.1)	161(2.7)	148(2.5)	148(2.5)	148(2.5)
고졸	495(4.9)	423(4.2)	443(4.3)	447(4.4)	478(4.7)	528(5.2)	444(4.3)	466(4.5)	460(4.5)	468(4.5)
대졸 이상	280(3.9)	268(3.6)	239(3.3)	225(3.1)	220(3.0)	277(3.7)	273(3.5)	253(3.3)	262(3.4)	254(3.3)
신규실업자	86	52	32	27	40	60	41	32	23	30
전직실업자	845	779	803	782	803	915	837	835	847	840
1년 이상	158	141	129	126	144	175	179	166	183	190
1년 미만	687	638	674	656	659	740	658	669	664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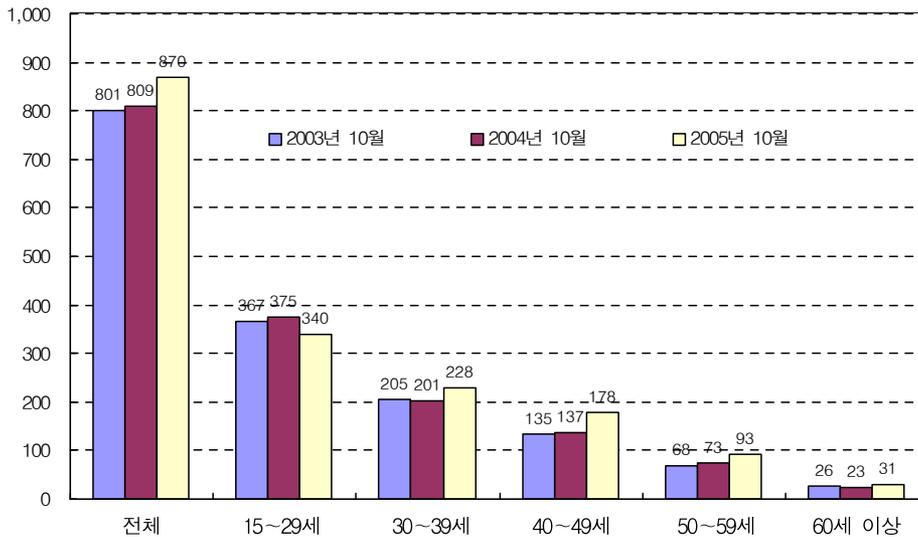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10월 고용동향』, 2005. 11.

〔그림 8〕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천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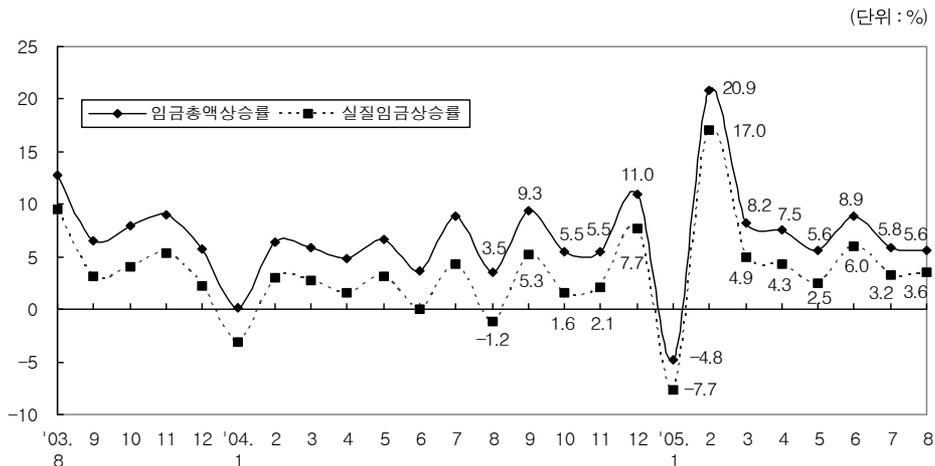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임금 동향

◆ 2005년 8월 임금상승률, 전년보다 2.1%포인트 높아

- 2005년 8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345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6%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3.5%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임.
  - 1~8월의 임금총액은 2,32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상승
  - 2005년 8월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정액급여 상승률 및 초과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높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규모별로는 5~9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임.
- 실질임금은 3.6% 상승
  - 2005년 8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3.6% 상승함.
  - 1~8월의 실질임금은 1월 실질임금이 7.7% 하락한 영향이 지속되어 임금총액 상승률보다는 낮은 4.0%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9]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월, 2000=100.0,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8월
		7월	8월							
임 금 총 액	2,255 (6.0)	2,185 ( 3.9)	2,115 ( 5.0)	2,324 (7.3)	2,399 ( 7.7)	2,348 (7.5)	2,272 (7.4)	2387 (5.8)	2345 (5.6)	2,324 (7.0)
정 액 급 여	1,636 (6.8)	1,599 ( 7.0)	1,613 ( 6.6)	1,643 (6.9)	1,690 ( 6.7)	1,726 (8.0)	1,734 (7.6)	1757 (7.2)	1759 (7.4)	1,737 (7.6)
초 과 급 여	137 (1.7)	132 ( 3.1)	138 ( 2.5)	137 (2.5)	143 (-1.0)	142 (7.8)	151 (8.9)	148 (11.6)	148 (8.5)	147 (8.8)
특 별 급 여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480 (5.7)	387 (6.2)	481 (0.6)	438 (-1.9)	440 (3.9)
실 질 임 금 지 수	117.9 (2.3)	115.5 ( 0.6)	111.1 ( 1.6)	120.5 (2.9)	124.5 ( 4.1)	120.3 (4.2)	115.8 (4.3)	121.5 (3.2)	119.0 (3.6)	118.6 (4.0)
소비자물가지수	114.7 (3.6)	113.4 ( 3.3)	114.2 ( 3.3)	115.6 (4.3)	115.5 ( 3.4)	117.0 (3.2)	117.6 (3.0)	117.8 (2.5)	118.2 (2.0)	117.5 (2.9)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5년 10월,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낮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6%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10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9%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5%보다 0.6%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9%로 전년동기의 5.6%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4.1%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2.7%에 비해 크게 상승
  - 전년보다 낮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5년 7월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 상 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전년보다 낮게 타결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중
  - 2005년 10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3,949개소에서 교섭이 타 결되어 전년동기(68.7%)보다 낮은 63.4%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64.3%로 6,024개소 중 3,878개소에서 교섭이 타결 되었으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76개소가 타결되어 37.3%의 진도율을 기록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10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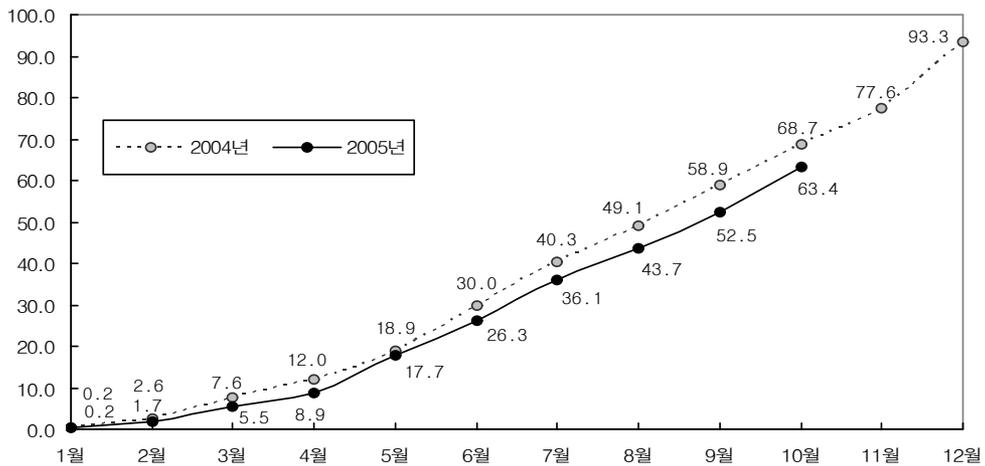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 (5,909)	3,949 (4,061)	63.4 (68.7)	4.9 (5.5)
민간부문	6,024 (5,727)	3,878 (3,973)	64.3 (69.4)	4.9 (5.6)
공공부문	204 ( 182)	76 ( 88)	37.3 (48.4)	4.1 (2.7)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10〕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